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동호회** : 오늘 오후 청파성서학당 이후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청파청소년 앙상블' 연주동호회가 신설되었습니다. 레포츠통호회는 자전거를 탑니다.

**교육부회의** : 교육부회의가 오늘 12:30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계삭회** : 지방여선교회 계삭회가 14일(화) 오전 10시 남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연주회** : 홍지희 청년의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판매** : 홍천(동면교회) 감자를 판매합니다. 한 상자(5kg)에 1만원입니다.

**전교인수양회** : 올 여름 계획되었던 전교인 수양회는 메르스 관계로 취소합니다.

**신앙실천** : 여름철 과도한 보양식은 오히려 몸과 자연에 해롭습니다. 지나친 보양식을 삼갑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삼하 7:1-14a / 시 89:20-37	2부	살전 1:1-10
예배	엡 2:11-22 / 막 6:30-34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이형숙 곽혜자 박경원 이명희 강영님 이국노 박호규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남인자 이증자 이수정b노성희 홍순구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7주 】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9. 성도여 다 함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분주하고 복잡하게 사느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살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굳은살처럼 무더진 우리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 일상 곳곳에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정의가 강물처럼,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원리와 원칙, 철학과 소신보다 감정과 패거리 의식, 이권과 자리다툼이 우선시되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루속히 가치가 전도된 이 사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고후5:17 ..... 인도자

♣ 교 독 문 ..... 84. 히브리서11장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대표기도 .....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양 ..... 96. 예수님은 누구신가 ..... 다 함께

♣ 성경봉독 ..... I. 삼하6:1-5 엡1:3-14 막6:14-29 ..... 장성호 선생  
 II. 잠언 24:15-20 ..... 이은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 큰 죄에 빠진 우리 ..... 찬양대

말 씬 ..... I.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 김재흥 목사  
 II.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 함께

##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영님	고속이	곽정자	구명자	국지연	김광일	이부용	김남종	오복선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영아	김용길	최영혜	김용태	박정숙	김재흥	최희영	김정길
최숙화	김정수	정자현	김정주	김정미	김종락	박영신	김종철	고영애	김중수
이순정	김지현	김혜진	민지희	박기영	박상규	박숙미	박시내	박옥순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운	백묘현	서원금	서정순
송인선	신영희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오자영	왕수명	유금주	윤영미	윤주원
최윤선	이건우	이계숙	이광섭	이수연	이근식	신영신	이동천	이우상	이계월
이인웅	오승경	이정은	이증자	김창경	이지훈	임 영	정경례	임호성	장영숙
전인섭	정두리	정선희	정연희	정재기	조관행	홍선희	조지연	주은경	주현철
강미선	한상경	홍성식	이유리						

### 감사헌금

김승욱	진혜정	김영아	김태정	문복순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운	박철국
이숙자	백묘현	신영희	안정준	유성근	안상남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호원	정다운	홍예선	조혜윤	최용준	김고은	한상익	정영선
한완식	임정자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이오복	무명13			

### 생일감사헌금

구명자 김용원 김흥기 이효원 임서영

### 녹색꿈헌금

신영희 이재문 이진영 한양미 임승동 백혜숙 무명1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백혜숙	박성희	방	학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혜경	박혜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복		

■ 마음으로 읽는 글

우기

새 한 마리 젖으며 먼 길을 간다  
 하늘에서 땅끝까지 적시며 비는 내리고  
 소리 내어 울진 않았으나  
 우리도 많은 날 피할 길 없는 빗줄기에 젖으며  
 남 모르는 험한 길을 많이도 지나왔다  
 하늘은 언제든 비가 되어 적실 듯 무거웠고  
 세상은 우리를 버려둔 채 낮밤 없이 흘러갔다  
 살다보면 매지구름 걷히고 하늘 개는 날 있으리라  
 그런 날 늘 크게 믿으며 여기까지 왔다  
 새 한 마리 비를 뚫고 말없이 하늘 간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	1·2남선교회
♣ 봉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악인은 곧 망합니다. 그의 횡포에 너무 분개하지 말고 그의 권세를 시기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 길을 가다가 행여 쓰러지더라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악인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가야할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불을 밝혀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멘.	
♣ 찬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복	.....	담임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일 집회</b>
청파성서학당 / 강의: 김기석 목사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b>동호회</b>	저녁 집회 / 강의: 이범석 목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이범석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안길상 권사	임창국 선생 박범희 권사

<b>7</b>	<b>영접위원</b>	하현철 윤성종 주경진 김윤정 김경혜 홍춘숙
	<b>헌금위원</b>	윤석철 정경례

믿음으로 읽는 글

## 사랑하라, 희망 없이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불행한 기억들은 마음속에서 그만 떠나보내자고, 희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들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꾸하기가 곤란해 우리는 그냥 희망이 있는 셈 치기로 한다. 그러나 이렇게 묻는 사람도 금세 입을 닫아버릴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봄날의 푸른 고사리처럼 자라나기 때문이다. 모두들 우리는 너무 피로하고 지쳐 있으며 변화될 가망은 없다고 느낀다. 내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운동가이자 퀘이커교도였던 파커 J. 파머는 놀랍게도 우리의 피로감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흑인인권운동의 가장 감동적인 싸움 중 하나였던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만들어낸 로자 파크스의 결정을 그 예로 든다.

1955년 12월 1일,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는 그만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버스 앞쪽의 백인 전용 좌석에 앉은 것이다. 그것은 엄연히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위험하고 대담하며 도발적인 행동이었다. 여러 해가 지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대학원생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그날 당신은 왜 버스 앞자리에 앉았나요?”

로자 파크스는 사회변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진 않았다. 그녀의 동기는 아주 단순했다.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피곤한 건 그녀의 몸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이, 그녀의 존재 전체가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규칙에 놀아나는 것에, 그녀 영혼이 주장하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피곤해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대체로 온순하고 얌전한 사람들이다. 어지간하면 사회가 원하는 속도와 방식에 따르려고 애쓰는 편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보를 믿고 도덕

적 사명감으로 무장하여 사회변혁을 꿈꾸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구하는 대로는 더 이상 움직여줄 수가 없다. 로자 파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쳤기에 우리는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 ...

작년 10월, 나는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정혜신 선생님이 계신 안산을 찾았다. ... 치유공간 ‘이웃’은 지금 우리 곁에 막 생겨난 고요한 공간 중의 하나이다. 정혜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웃’의 유난히 밝은 방은 각별히 방음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제대로 울 곳조차 없는 이들을 위한 장소예요” 라고 소개하던 선생님의 따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참 섬세하고 시적인 배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어진 설명은 이러했다. 아이를 잃고 집에 돌아온 밤, 부모가 통곡을 하고 옆집에서 따라 울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다 100일쯤 지나자 옆집에서 신고를 했다. 야박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

상처와 사랑과 고통에 대한 정혜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정리하는 내내 나는 영국 시인 로버트 그레이브스의 시를 떠올렸다.

사랑하라, 희망 없이, 마치 젊은 새잡이가  
지주의 딸에게 자기의 높은 모자를 획 벗어 날려보내듯이  
그리하여 감금되었던 종달새들이 도망쳐 날아오르게 하라  
그녀가 말 타고 지나갈 때 그 머리 주위에서 노래하도록

... 이 사랑은 젊은 새잡이의 삶을 그리 평화롭게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의 삶을 더 곤궁하고 난처하게 만들 테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는 사랑을 시작한다. 사랑의 속삭임을 피할 수 없어서,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둘 수 없어서 그는 사랑에 빠진다. 이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아름답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라, 희망 없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슬픔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우리는 다시 시인의 명령을 마음에 새긴다.

- 정혜신·진은영, 「천사들은 우리 옆집에 산다」 (창비) 중에서